

# 제 6차 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

## 기후 위기 시대의 도전과 교회의 대응

### 일시

2022년 6월 21일(화)  
오후 1시 ~ 4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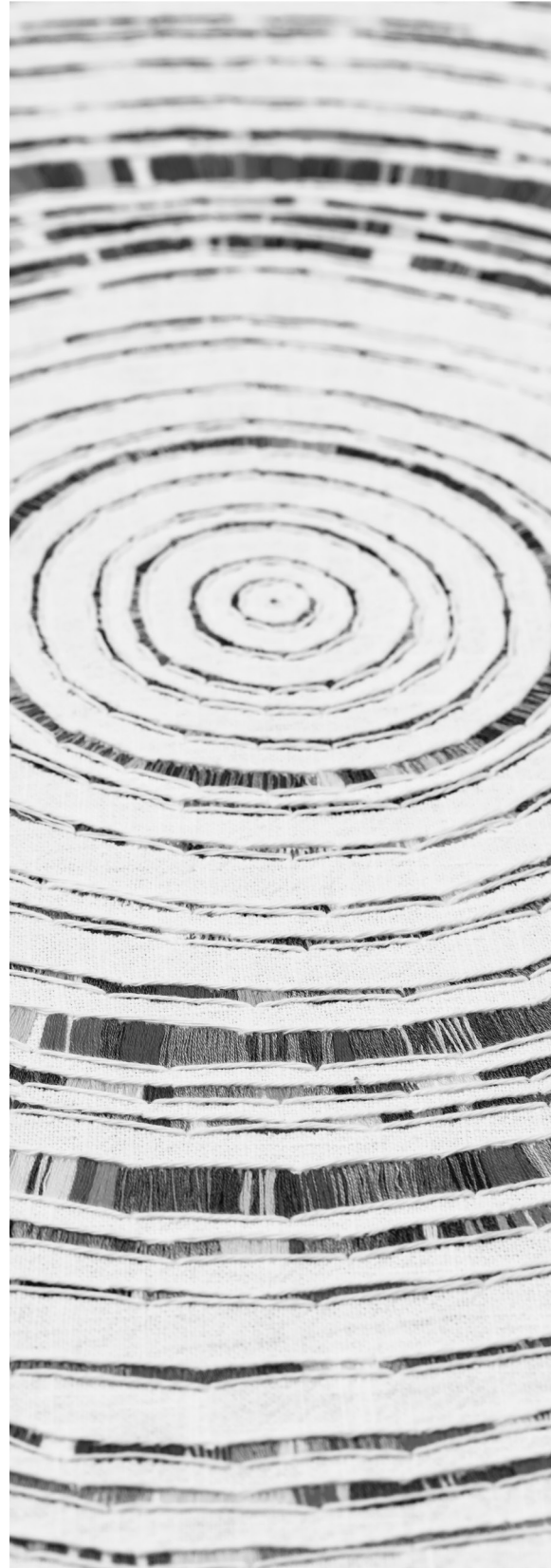
### 장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구관) 2층 회의실  
(온라인 zoom 동시 진행)

공동주관  
기독교환경교육센터살림  
교회와사회연구소  
이음사회문화연구원  
효산건강환경재단

공동주최  
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후원  
CTS  
기독신문  
목회데이터연구소  
복내전인치유선교센터  
환경부



**개회사**

이박행 목사 | 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 총무 ..... 07

**격려사**

고영기 목사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 총무 ..... 09

김보현 목사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사무총장 ..... 11

**탄소중립 기후교회 선언문 채택 및 의식조사 결과**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기후교회 신앙선언 ..... 15

한국교회 기후환경 의식조사 결과 ..... 20

**환경 북토크 및 행동 제안**

단행본 '기후위기 시대의 도전과 교회의 응답' (새물결플러스, 2022) 소개글 ..... 27

**환경 전반** 행동하는 신앙을 위한 제안 (이인미) ..... 32

**사회 전환** 탄소중립 2050을 위한 신앙적 관점에서 사회전환 방향 제안 (최영수) ..... 34

**건강 도시** 전인 건강도시를 위한 제안 (강은정) ..... 37

**한국 교회** 한국교회 행동제안서 (구교형) ..... 39

탄소제로 녹색교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41

1부

개회 및 선언문 발표

- 공동사회**      고재백 교수 |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유미호 센터장 |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 개회사**        이박행 목사 | 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 총무
- 여는기도**      김정태 목사 |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이사
- 축사**            신평식 목사 | 한국교회총연합 사무총장
- 격려사**         고영기 목사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 총무  
김보현 목사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사무총장
- 선언문 발표**    정원범 교수 | 교회와사회연구소 소장
- 한국교회 기후환경 의식조사 발표**  
김진양 부대표 | 목회데이터연구소

2부

환경 복 토크와 행동제안 토론 및 기도회

- 환경 복 토크**    “기후 위기 시대의 도전과 교회의 응답” 저자 참여(온오프라인)  
- 김정욱, 윤순진, 김신영, 이정배, 박일준, 조영호, 박성철, 정원범  
백영기, 유미호, 이박행, 한기채, 송준인

행동하는 신앙을 위한 제안

- 패널 1. **환경 전반** 이인미 박사 |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연구실장
- 패널 2. **사회 전환** 최영수 교수 | 숙대 TESOL, 국제학대학원 기후환경융합과
- 패널 3. **건강 도시** 강은정 교수 | 순천향대, 효산건강환경재단 사무국장
- 패널 4. **한국 교회** 구교형 목사 |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공동대표

탄소중립2050을 위한 침묵기도회

- 김오성 목사 | 한국살렘영성훈련원



**이박행** 목사  
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 총무

코로나 감염 사태는 지구촌을 멈추게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코로나 팬데믹이 서서히 끝나가고 있지만 코로나19와는 비교도 안 되는 또 하나의 지구적 위협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기후 변화, 기후위기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인류의 문명 자체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IPCC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2050년까지 전 세계가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기후위기의 시대를 맞아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의 창조세계인 지구 생태계의 붕괴를 막아야 하는 긴급한 과제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은, 하나님의 품으로서 하나의 지구(One Earth)안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하나의 건강(One Health)을 회복해 가는 일을 위해 기독교환경교육센터\_살림과 이음사회문화연구원과 더불어 환경 분야 전문가 13인의 공동 저작물 “기후 위기 시대의 도전과 교회 응답”을 출간하였고, 금번 포럼에 저자들을 직접 모셔서 생명생태문화 창달을 위한 담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특별한 것은 2022년 한국교회총연합이 최근 실시한 ‘기독교인 환경의식실태조사’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일과 생명생태운동을 새롭게 다짐하는 “2022년 기후위기 탄소중립 기후교회 신앙선언문”을 채택하는 일입니다. 그런 후에 환경전반, 사회, 도시건강, 교회 각 등 네 개의 분야별로 실천 제안을 발표하고 토론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신음하는 피조세계를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포럼 이후에는 “기후위기사대, 탄소중립 기후교회 신앙선언”을 한국교회 대표 교단장들에게 전달하여 총회 정책에 반영하도록 청원드릴 것입니다. 아울러 전국을 순회하면서 환경 북 콘서트와 워크숍을 개최하여 창조질서보존 운동이 지역 단위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내 환경 단체와 연대하여 협력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부, 지자체, 기업, 시민운동, 환경단체, 교육단체 연대 행동 촉구하여 생명생태문명 전환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금번 포럼은 생명회복을 위해 한국교회가 초교파적으로 뜻을 모은 연대의 장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예장 합동, 예장 통합 교단 실무 책임자이신 고영기 총무님, 김보현 사무총장님께서 격려를 해주셨다는 점에 의의가 깊습니다. 최근 예장합동 106회기 “총회미래정책개발위원회”에서는 환경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기로 확정했고, 107회기 총회에서는 “기후환경 위기 특별위원회” 상비부를 설치, 운용하기로 하고 실무 협의 진행 중입니다. 올해는 예장 합동 교단에서 환경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 교단이 뜻을 모아 한국교회 생명생태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럼을 합심해서 준비한 동역단체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주최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공동 주관으로 교회사회연구소, 기독교환경교육센터\_살림, 이음문화연구소, 목회데이터연구소, 효산건강환경재단, 복내전인치유선교센터 그리고 연대 후원해 주신 교회, 단체, 언론기관이 앞으로도 깊은 형제애를 품고 동역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은 이번 포럼을 통해 지구를 살리는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한국교회에 기독교 생명회복 운동을 불러일으키는 일에 작으나마 한 알의 밀알이 되었으면 합니다. 단 하나 뿐인 지구를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지혜와 영감, 우애와 연대, 용기에 찬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가정, 교회, 일터와 생태계를 포함한 전 지구 공동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6월 21일



**고영기**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 총무

여호와 살롬! 2022년 한국교회 생명신학포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의 생존과 관련해 매우 긴박한 ‘기후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인간 활동이라는 사실과, 기후환경과 관련한 현재까지의 정책으로는 지구의 미래가 어둡다는 데 전 세계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지난 2015년 12월 채택한 ‘파리 기후협정’을 통해 지구의 평균기온이 산업화 시기 이전보다 2℃ 이상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 2018년 10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48차 총회에서는 2℃ 억제로는 전 인류의 파국을 막기 어렵다는 내용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지구 기온 상승을 1.5℃ 막자는 것이 국제사회의 목표가 된 것이고, 우리 정부 역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후환경과 변화의 문제는 전 세계적 위기로 과제가 되었습니다. 국경과 지역은 인간이 나눈 경계일 뿐 결국 지구는 하나요, 탄소중립의 책임 역시 누구 하나가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니라 정부, 기업, 종교, 시민단체 모두의 연대와 행동을 요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 한국의 국운 역시 저 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와, 기후변화 문제 대응 여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중에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고민과 공동체적 응답을 모색하는 장들이 기독교계 안에서도 활성화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바라기는 “기후 위기 시대의 도전과 교회 응답”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제6차 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이 지구를 위한 지속가능한

약속과 실천을 선언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창조의 면류관이요 피조세계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피조세계 사이에 위치합니다. 위로 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대리자로서 창조주의 선하신 주권과 통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피조세계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또 아래로부터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합니다. 영광과 특권이 따르는 직임인 동시에 책임과 의무가 동반되는 자리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교회와 기독교인의 본질적이고 시대적인 과제인 셈입니다.

그러나 인구절벽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기후환경 문제 역시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에 부응하여 인간의 탐욕 하에서 탄식하는 피조세계(로마서 8:19~22)의 회복을 위해 기꺼이 좁은 길을 선택하고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기후환경의 골든타임을 지나는 지금, 주님의 엄중하신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살만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다음세대에 물려주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김보현**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사무총장

한국교회 생명신학포럼 제6차 대회가 '기후위기 시대의 도전과 교회의 응답'을 주제로 열리게 됨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교회학교 시절부터 익숙하게 들었던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말 그대로 노아의 방주는 홍수에 직면한 지구 생명공동체의 구원선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노아 방주의 이야기에 전통적으로 제기된 질문 가운데 하나는 과연 방주의 제작 기간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120년으로 보는 전통적 견해와 아무리 길어도 7,80년일 것이라는 견해로 갈립니다. 분명한 것은 엄청난 재난 임박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전파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최악이 관영하던 시대, 하나님마저 인간 창조를 후회하고 심판을 준비하셨다는 성경의 기록을 고려하면, 심판으로 최후를 맞게 된 인류는 후회보다는 원망과 비난을 택했을 확률이 매우 더 커 보입니다. '정신 나간 노아 가족의 일탈인 줄 알았는데... 엄청난 재앙이 어찌 이리 갑자기 닥쳐올 수 있을까' 하며 말입니다.

기후위기를 생각할 때마다 다시 한 번 스스로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분주한 일상과 코로나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다는 안도감이 여전히, 아니 더욱 심각해져가고 있는 기후위기 심각성마저 덩달아 외면하게 할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홍수 심판의 계시는 당시 의인 노아에게만 주어진 소명이요 사명이었습니다. 반면 기후위기 문제는 수 십 년 간 전문가들의 연구 논문, 국제회의와 보고서 등을 통해 만천하에 끊임없이 외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건들을 정독하지 않아도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요란한 경고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유사 이래 최대 규모라는 산불이 해외에 이어 국내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국내는 물론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1200년 만의 최악의 가뭄 소식이 들려오며,

지난 수년 간 국지성 폭우, 역대급 태풍 연이어 찾아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 보도에는 공식과도 같이 등장하는 요인은 바로 기후위기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산 위에서 배를 짓던 노아를 손가락질 하고 인류가 곧 홍수로 심판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외면하던 이들을 참 어리석다 생각합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의 일치된 연구 결과와 되돌리기 힘든 기후 재난이 임박하고 그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경고와 진단도 애써 외면하며 관성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난 2017년 '생명' 문제를 전면에 내걸고 출범한 한국교회 생명신학포럼의 활동은 생명위기 시대를 깨우는 외로운 예언자의 외침이라 믿습니다. 지난 20년, '생명살리기운동 10년', '생명공동체운동 10년' 등 장기정책을 추진해 온 교단으로서 매우 반갑고 깊은 감사와 연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두 해 코로나19의 격랑 속에서 한국사회와 기독교의 전망과 통전적 목회 대응을 주제로 다룬 데 이어 올해, '기후 위기 시대 도전과 교회의 응답'을 제6차 포럼 주제로 정한 것은 시의 적절한 주제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영국에서 열린 COP26과 지난해 말부터 연이어 보고되고 있는 IPCC 제6차 평가보고서는 기후위기의 시간표가 앞당겨 지고 있음을 세 가지 특별보고서와 실무그룹보고서를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러한 경고와 함께 부족하지만 그간 펼쳐온 노력들로 인해 낙관할 수는 없으나 실낱같은 희망의 단초들이 있음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지구생명공동체를 향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길가의 돌들이 소리 내어 외치기 전에,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적 행동에 나서게 되길 소망합니다.

## 탄소중립 기후교회 선언문 채택 및 의식조사 결과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기후교회 신앙선언

한국교회 기후환경 의식조사 결과

## 2022 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 선언문

##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기후교회 신앙선언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꺾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마 16: 3)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신 30:19)

지구 생태계와 문명의 지속가능성 회복을 위해 창립된 <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은 제1회 “다시 생명이다”, 제2회 “생명의 터, 마을공동체”, 제3회 “기독교와 경제”, 제4회 “COVID19 이후 한국사회와 기독교”, 제5회 “위드 COVID19과 통전적 목회 대응”의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고, 2020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생명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한 신학문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2022년 올해 우리는 제6회 “기후 위기 시대의 도전과 교회의 응답”이란 주제로 포럼을 열고 한국교회에 호소한다.

## I. 지금은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할 때이다.

지금 우리는 매우 긴박한 ‘기후 비상 사태’에 처해 있다. 매우 이례적으로 극단적인 이상기후 현상의 빈도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살인적인 폭염, 엄청난 폭우와 대홍수, 통제 불능의 태풍, 빈번한 산불, 극심한 가뭄 등 지구 조절 시스템이 붕괴 직전이다.

이 같은 위기의 원인은 산업화 이후 인간이 내뿜는 '탄소'다.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자며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회(IPCC)가 최근 발표한 제6차 보고서(2021~2022)에서 보듯, 전 세계적으로 합의한 행동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생존 가능한 미래를 지킬 기회를 놓치게 될 상황이다. 더구나 무한 경쟁과 무한 성장을 추구하며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탐욕의 악순환은 끊어내기가 쉽지 않다. 지금 당장 1) 지구의 다른 존재들이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인간중심주의, 2) 창조세계를 인간과 자연, 영혼과 육체,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고, 후자에 대한 전자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위계적 이원론, 3) 자연을 하나의 기계처럼 움직이는 물질로 보는 기계론적 자연관, 4) 소비를 통해 자신의 존재가치, 사회적 지위, 행복감을 확인하는 소비지향적 삶을 끊어내고 기후위기에 비상하게 대처해야 한다.

## II. 상생과 공존의 생태문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생과 공존의 생태문명으로의 대전환이다.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지키고 돌보려면 현대 사회의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 무한 성장, 무한 경쟁을 추구하는 탐욕적인 시장자본주의 문명을 지구 생태계와의 조화를 추구하는 생태문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모든 존재가 상호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하고, 인간과 인간뿐 아니라 인간과 모든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과 공존의 문명을 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식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1) 인간중심주의를, 자연과 인간은 공동운명체라는 생명의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2) 개인주의적 인간관을, 인간이 지구에 철저히 의존하며 모든 생명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공동체적, 생태적 인간관으로 전환해야 한다. 3) 이원론적 지배의식을, 모든 생명은 상호관계성과 상호의존성의 네트워크 속에 존재한다고 보는 통전적 평등의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4) 기계적 세계관을, 자연(세계)을 수많은 다양한 지체들이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된 살아 있는 유기체로 파악하는 유기체적 세계관으로 전환해야 한다.

## III. 기후위기 대응은 기독교인의 본질적이고 시대적인 과제이다.

기후위기 대응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지키고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 창조세계 돌봄 곧 기후위기 시대의 '탄소중립'은 태초부터 부여받은 사명이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감당해야 할 본질적 신앙과제이다. 또한 탄소중립을 이루어가는 '기후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

신 교회, 곧 '녹색교회'로서의 본질을 시대적으로 드러내는 일이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인정한다(시 50:10-12).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단순히 인간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 개인과 사회와 자연 만물을 포함하는 우주적인 구원임을 인정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단순히 영혼만을 새롭게 하시는 영이 아니라 자연을 포함한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의 영임을 함께 고백한다.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에게 호소한다: 1) 기후위기의 문제는 신앙 밖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주제인 창조신앙의 문제임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고백할 것을 호소한다. 2) 이웃 사랑과 지구 돌봄의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며 전 교회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을 호소한다.

## IV. '탄소제로 녹색교회'선언과 함께 기후정의 실현에 힘쓴다.

우리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고 하셨던 창조세계를 놀라움과 경탄, 경외감으로 다시 바라본다. 그리고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파괴한 모든 행위도 돌아보며 회개한다. 인간이 수많은 다른 종들을 멸종에 이르게 한 죄,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생물다양성을 파괴한 죄, 삼림을 모조리 벗겨내고 습지를 파괴함으로써 기후위기를 초래하고 지구의 회복력을 상실하게 한 죄, 지구의 공기와 땅과 물을 오염시킨 그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한국교회에 호소한다.

1) 생태적 회심을 바탕으로 '탄소제로'라는 시대적 과제와 하나님의 '녹색교회' 됨을 자각하고 '탄소제로 녹색교회'를 선언하고 자기진단함으로 변화를 도모할 것을 제안한다. 2) 무한 성장을 추구하는 탐욕적인 자본주의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생명, 생태, 감사, 겸손, 공감, 배려, 공생, 공존, 조화, 균형, 나눔, 비움, 치유, 회복, 지속가능성, 상호연결성, 연대성, 생물다양성, 사랑, 정의, 평화' 등의 생명살림의 가치를 중심에 둔 신앙공동체로 거듭나게 되길 호소한다. 더불어 3) 기후위기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을 살펴, 하나님의 정의 곧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쓸 것을 간청한다.

### V. 함께 지속 가능한 경제적 책임을 다하게 되길 기도한다.

전 세계 과학자들은 2028~2034년에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높아질 것을 우려한다. 예상시기보다 10년이 앞당겨졌다. 1.5도를 넘어서면 기후재앙이 일상화하고, 상황을 돌이킬 수도 없게 된다. 1.5도는 인류 생존을 위한 일종의 마지노선이다. 이를 지키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과 자연파괴를 최소화하는 생태적 경제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즉,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로 인해 자원은 고갈되고 온실가스와 쓰레기는 한없이 늘어나는 단선형 경제에서 벗어나, 생산 소비 폐기의 과정이 순환되는 순환경제로 전환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한국교회에 호소한다: 1) 모든 기독교인이 에너지와 물질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소비지향적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도록 교육할 것을 호소한다. 2) 전 교회가 지구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생태적 삶을 실천하는 기후위기 극복운동을 전개해갈 것을 호소한다.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생산에 적극 동참하고, 육류보다는 곡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며,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과포장 등의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대중교통을 즐기며 전기차로의 전환에 힘쓸 것을 호소한다.

### VI. 생태사회로 전환을 촉구하는 정치 윤리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전 세계가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3% 감축하고, 2050년까지 배출량을 제로화하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이 일은 각국의 정부와 기업이 힘든 희생을 각오하면서 실행하려고 할 때 비로소 이룰 수 있다. 한국교회도 그 달성을 위한 정치윤리적인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한국교회가 다음과 같은 일에 한 목소리를 낼 것을 호소한다: 1)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획기적이고도 과감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2) 정부와 기업이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산업체계를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산업체계, 그리고 순환경제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3) 기후 관련 시민환경단체들과 연대하여 정부와 국회, 지방의회가 기후위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가도록 촉구한다.

우리는 창조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기억하며, 모든 생명과 더불어 공생 공존

하는 삶을 살아나갈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즐겨 받으실 참된 예배이기 때문이다. 이 땅 모든 교회들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택함으로, 하나의 지구(One Earth) 안에 사는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하나의 건강(One Health)을 추구해나가게 되길 기도한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전대미문의 기후붕괴라는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 '탄소중립 기후교회'라는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이 땅에 참 평화와 안식을 회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란다.

2022년 6월 21일, 제 6차 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

#### 주최·주관 :

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교회와사회연구소,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목회데이터연구소, 복내전인치유선교센터, 이음사회문화문화연구원, 호산건강환경재단

#### 공동연대 :

PSP선교회, 개미목훈련원, 개혁타임즈, 거금도월포교회, 공공신학연구소, 공주세광교회, 광교산울교회, 광양읍교회, 광주다일교회, 광주동명교회, 광주벚엘교회, 금산교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종합신문, 나로도해평의원, 더불어숲동산교회, 더주님의교회, 동북아생명누리협동조합, 두리문화출판사, 미션21, 분당우리교회, 비블로스성 경인문학연구소, 사단법인청미래재단, 사랑누리교회, 새백성교회, 서문교회, 서울영동교회, 성광교회, 성서한국, 송탄장로교회, 수원권선제일교회, 수월리교회, 순환경제연구소, 십자가로교회, 쌍샘자연교회, 영광대교회, 예드림교회, 예수비전교회, 인권시민실천행동, 인천내일을여는집, 인천해인교회, 인터서브선교회, 일산은혜교회, 일상생활사역연구소, 작동교회, 전주제자교회, 정치신학연구소 교회와사회, 주님의교회, (주)미션컴, 진흥교회, 참든든건강과학, 첨단중앙교회, 청북교회, 쿤리엄 예수마을(캄보디아), 크리스찬 인사이드, 평화누리교회, 평화로운교회, 하늘깊은샘교회, 하늘뜻담은교회 (무순), 한국그리스도교일치포럼, 한국농촌선교학교, 한국목회간호선교협회, 함평전원교회, 함평함광교회, 행복이가득한교회, 흥농은혜교회, 희년상생사회적경제네트워크, 강은진, 강주희, 경은화, 고경태, 권혁철, 김민오, 김민홍, 김영민, 김재상, 김진명, 김진명, 김찬영, 담안유, 박요섭, 박호성, 이대인, 이종욱, 송준인, 임무환, 임소연, 임예슬, 장승익, 장영일, 정진화, 정평진, 천향희, 최승락, 최진혁, 홍승만

\* 탄소중립 기후교회 신앙선언문 작성 (집필위원장 정원범, 집필위원 김정태, 유미호)



# 한국교회 기후환경 의식조사 결과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1. 조사 개요

본 조사는 일반국민과 개신교인, 그리고 담임목사를 대상으로 기후환경에 대한 인식과 실천 그리고 교회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파악하여 기후환경에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효과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조사 설계

구 분	개신교인 조사	일반국민 조사	목회자 조사
조사 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남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전국 담임목사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 대상 온라인 조사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조사
표본 규모	총 1,000명 (유효 표본)	총 1,000명 (유효 표본)	505명
표본 추출	인구센서스 자료에 따른 지역/성/연령별 개신교인 비례할당 추출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른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추출	편의추출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95% 신뢰수준에서 ±3.1%p	편의추출은 표본오차 없음
조사 기간	2022년 4월 27일 ~ 5월 9일		
조사협력기관	조사방향 및 설문지 설계에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과 협업함		

## 3. 주요 조사 결과

◆ 기후환경에 대한 관심과 심각성 인지 높으나 상대적으로 경각심 낮음

- 기후환경에 대한 관심도(목회자 92.3% 개신교인 89.3%, 일반국민 81.1%)가 높고 '나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개신교인 8개 항목 중 1위, 일반국민 2위),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아님(개신교인 8개 항목 중 5위, 일반국민 5위)
  - 내 삶에 영향 있지만 최우선 해결 문제는 아니라는 인식
-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으나('위기상황으로 감+위기상황에 접어들' 비율 : 3개 집단 모두 80% 이상) '나보다는 '다음(자녀) 세대'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목회자의 경우, 기후환경으로 인한 '사람과 사람 관계 저해' 및 '양극화 유발'에 대한 동의보다 '교회와 지역주민 관계 저해'에 대한 동의율 현격히 낮음
  - 나의 삶이나 목회에 직접적인 영향은 덜 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습
  - 경각심 낮음 보여줌
- 기후환경을 위한 실천이 잘 되지 않는 이유 1위 '타성화된 습관' (개신교인 및 일반국민) '개인의 노력이 도움이 되지 않음'+ '나에게 이득이 없음' 등 관조적 태도 40% 가량 나타남 (개신교인 및 일반국민)
  - 근본적 인식 개선을 통한 실천 유도 필요

### ◆ 개인 또는 정부 보다 '기업'의 역할 중요하게 인식

- 정부 정책 중 개인에 대한 세금 부과(개신교인 79.9%, 일반국민 78.6%), 전기요금 인상(개신교인 54.8%, 일반국민 55.0%) 등 보다는 기업에 대한 규제(개신교인 93.2%, 일반국민 92.2%) 및 인센티브(개신교인 93.2%, 일반국민 91.5%)에 더 찬성률 높음
-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주체 : 10개 주체 중 '기업/산업체' 1위 (3개 집단 공통)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잘 하고 있는 주체 : '기업/산업체' 8위(개신교인/일반국민), 9위(목회자)
  -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있어 '기업'의 역할을 중시하는 인식 보여줌
- 기후환경 위기 대응 과정이 기업의 평판과 지속가능성장에 긍정적이라는 주장에 동의율 높음(3개 집단 공통)
  - 기업에 대해 더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지역사회 또는 지자체 활동에 대한 인식은 낮음**

- 지역사회 기후환경 단체 또는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인식 높지 않음. - ‘단체명과 활동 내용 안다’ : 개신교인 3.0%, 일반국민 4.9% 목회자 12.3%
- 지자체 시행 정책 또는 설정 목표 등에 대한 인식 없음 - ‘구체적으로 안다’ : 개신교인 2.3%, 일반국민 2.3%
  - 지역사회와 지자체의 활동에 대한 인지가 낮은 것은 1)지역사회와 지자체의 기후환경 활동이 미비하거나, 2)기후환경에 대한 실질적 관심이 저조한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지역사회의 기후환경 활동에 대한 필요성은 높음
- 교회가 탄소중립을 위해 협력해야 할 주체 1위 : 지역사회 (3개 집단 공통)
- 현재 시무 교회가 기후환경을 위해 지역사회 연계 활동 하는 비율 : 14.7% (목회자)
- 향후 기후환경을 위해 지역사회 연계 의향 : 88.7% (목회자)
  - 지역사회의 기후환경 활동 필요성 및 지역사회와 연계에 대한 필요성, 교회의 지역사회 연계 니즈는 높음. 지역사회를 통해 경각심 높이고 실천 유도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교회의 기후환경 활동 경험 낮지만 개신교인 중심으로 확대 가능성 있음**

- 출석교회의 기후환경 교육/실천 캠페인 시행 경험 : 32.4% (개신교인)
- 시무교회의 기후환경 교육/실천 캠페인 시행 경험 38.4% (목회자)
- 기후환경에 대한 감정은 일반국민보다 개신교인에서 부정 감정(우려, 두려운, 미안한 등)이 더 높음
- 개신교인의 기후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도, 일반국민보다 높음(개신교인 82.7%, 일반국민 76.1%)
- 일반국민 10명 중 4명(38%), 주변 교회의 기후환경 캠페인에 참여 의향 보임
  - 개신교인이 기후환경 문제에 더 예민하고 경각심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현재는 시행이 미비한 교회의 기후환경 대처 활동을 늘린다면 개신교인 뿐 아니라 일반국민으로 확대 가능성 있음

◆ **기후환경에 대한 관점 : 목회자 - 신앙적, 개신교인 - 일반적**

- 기후환경 운동은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선교의 한 종류’이다 : 목회자 47.1%, 개신교인 18.0%
- 목회자 대상, ‘기후환경을 위한 활동은 목회의 본질적 부분으로 목회의 필수적 사항’ 50.1% > ‘기후환경을 위한 활동은 사회적 봉사 활동의 하나로 목회의 선택적 사항’ 46.3%
- 기후환경 문제 극복을 위한 교회의 중점 사항 :
  - 개신교인 - 생활 캠페인, 교회 차원의 에너지 절약, 안쓰는 물건 나눔 등 일상생활 속 행동 중심. ‘창조신앙적 관점의 성경공부 및 실천 워크숍’, ‘기후환경을 위한 예배/기도회’ 등 신앙과 관련된 항목 응답률 낮음
  - 목회자 - ‘교인의 친환경 생활 캠페인’ 다음으로 ‘창조신앙적 관점에서 본 성경공부 및 실천 워크숍’ 많이 꼽음
- 개신교인은 신앙과는 별개의 일반적 관점. 목회자는 보다 신앙적인 관점으로 기후환경 문제를 바라보고 있음

◆ **개신교인의 기후환경 활동, ‘신앙적 관점’ 병행되어야 함**

- 성도들의 인식/습관 개선을 위해 중요한 것 :
  - 개신교인 -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위한 생활 실천 캠페인’ >> ‘창조질서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
  - 목회자 - ‘창조질서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 >>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위한 생활 실천 캠페인’
- 목회자는 신앙적 관점으로 기후환경을 바라보는 교육 중시. 개신교인은 생활 속 실천 확대 중시
- 두 집단 모두 ‘기후환경을 위한 예배/기도회’는 후순위에 있음
- 출석교회에서 실시한 기후환경 교육/캠페인(개신교인) : ‘안쓰는 물건 나눔’, ‘교인의 친환경 생활 캠페인’ 70% 이상. ‘기후환경을 위한 예배/기도회’, ‘창조신앙적 관점에서 본 성경공부 및 실천 워크숍’ 등 신앙 연계 활동은 30%대에 그침
  - 교회의 기후환경 활동도 교회 밖과 유사한 일반적 활동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

→ 신앙적 관점으로 기후환경을 바라보는 교육/캠페인 통해 근본적 문제 인식과 경각심 갖는 것 필요

◆ **목회자, 기후환경 교육에 대한 니즈 있음**

- 기후환경 관련 설교 하지 않은 이유 : '나의 기후환경에 대한 지식/정보 부족' 1위
- 기후환경 교육/실천 캠페인 진행하지 않은 이유 : '어떤 내용으로 해야할지 모르겠다' 1위  
→ 기후환경 관련한 목회 활동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 없어 어려움 느끼고 있음
- 교단 또는 노회/지방회 차원의 기후환경 활동 필요성 : 94.1%
- 교단 또는 노회/지방회의 기후환경 교육 참여 의향 : 93.5%
- 교단 또는 노회/지방회의 기후환경 실천 캠페인 참여 의향 : 92.1%  
→ 교육 및 실천 캠페인 참여 의향률 매우 높음  
→ 설교 및 목회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 위주로 교육 필요

◆ **교회의 기후환경 문제 대처 활동은 한국교회 신뢰도 높일 수 있음**

- 교회가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 형성됨(목회자 95.8%, 개신교인 88.8%, 일반국민 77.3%)  
→ 목회자의 적극 대처 인식 높은 것이 고무적  
→ 목회자 교육을 통해 실천 유도 방법을 공유한다면 개교회별 시행 가능성 높음
- 교회가 나서면 위기 극복에 도움 된다는 인식 높음(목회자 89.5%, 개신교인 91.5%, 일반국민 70.4%)
- 교회가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적극 개입하고 활동한다면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목회자 83.6%, 개신교인 83.1%, 일반국민 63.4%)  
→ 한국교회의 기후환경 대처 활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존하는 근본적 사명을 다함일 뿐 아니라 교회의 사회적 역할에도 부합하며, 나아가 한국교회의 신뢰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환경 복토크 및 행동 제안

단행본 '기후위기 시대의 도전과 교회의 응답'  
(새물결플러스, 2022) 소개글

**환경 전반**

행동하는 신앙을 위한 제안 (이인미)

**사회 전환**

탄소중립 2050을 위한 신앙적 관점에서  
사회전환 방향 제안 (최영수)

**건강 도시**

전인 건강도시를 위한 제안 (강은정)

**한국 교회**

한국교회 행동제안서 (구교형)

탄소제로 녹색교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단행본 ‘기후위기 시대의 도전과 교회의 응답’ (새물결플러스, 2022) 소개글

\* 공동기획 : 이음사회문화연구원+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 책임 편집자 : **고재백 교수** |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이음사회문화연구원 공동대표  
**유미호 센터장** |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조영호 교수** | 안양대학교 신학과

\* 출판사 : 새물결플러스 (2022년 2월 28일)

### 기후 위기 시대에 맞닥뜨린 인류와 기독교

기후 위기가 지구 생태계와 생명체를 위협하고 있다. 지구와 생명체의 탄식과 신음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는 폭염, 폭염, 태풍, 홍수, 산불, 질병과 같은 현상들이 지구와 인류를 향해 경고음을 높여가고 있다.

이 종말론적인 위기의 시대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저 체념한 채로 앉아 곧 닥쳐올 생명의 멸종과 지구의 종말을 기다려야 하는가? 아니면 힘을 내어 무엇이든 해야 하는가? 더욱이 지구의 정원사로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긴박한 생태위기의 도전과 기독교적 질문 앞에서 프로젝트 ‘기후 위기 시대의 기독교’가 시작되었다.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과 세계적인 기후위기 논의를 주목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기후 위기 시대의 기독교와 교회의 역할”을 탐구하고 그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이 이 프로젝트를 앞에서 이끌었고 많은 분들이 뒤에서 응원하며 힘을 보태주었다. 오랫동안 이 주제에 대해 고뇌하며 탐구한 연구자들과 곳곳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한 실천가들이 직간접적으로 협력하였다. 드디어 1년 여 만에 그 틈

실한 결실로 『기후 위기 시대의 도전과 교회의 응답』이라는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시대정신을 간파한 여러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기꺼이 자신의 연구 결과와 활동의 경험 및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고백을 글로 정리해주었다. 신학과 교단의 넓은 스펙트럼을 포괄하는 노·장·청 세대가 그동안 이 프로젝트를 통해 생각을 공유하며 협력해왔다는 점이 자랑스러운 성과라 할 수 있겠다.

이 프로젝트는 <이음사회문화연구원>이 먼저 주도하여 기획하였고, 연구원과 뜻을 함께 한 <☞에이치투그룹>과 오래전부터 기독교 환경운동에 헌신한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이 공동주관자로 합류하였다. 그리고 복음주의 교계에서 생명 신학과 생명 목회를 추구해온 <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이 이 프로젝트에 연대하고, <☞천일식품>이 후원에 참여하면서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갈래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하나는 기후 위기 시대에 기독교의 역할과 대안 및 실천 방안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대중화하는 일이다. 기후 위기는 기독교에 신학적·신앙적 질문을 제기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교회상과 신앙관을 갖출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적절한 신학과 신앙의 답을 찾고, 이 시대에 적합한 교회상과 신앙관을 정립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널리 알리고자 한다. 다른 하나는 아카데미 교육 활동이다. 기후 위기는 우리에게 의식과 생활양식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구 생태계의 위협과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각자 삶의 방식을 전환하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다. 이에 프로젝트는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들과 실천가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아카데미 강의와 교회와 기독교 기관에서 개최하는 강연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기후 위기를 해소하고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 모든 활동을 통해 한국교회가 탈탄소 녹색교회로 탈바꿈하여 지역 사회와 연대할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생태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기후 위기 시대의 도전에 대한 기독교의 응답

이 책은 기후 위기 시대의 도전에 대해 환경학과 환경교육 분야 및 신학과 목회 등 여러 분야에서 기독교적 응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집필자들은 기독교의 신학적이고 윤리적이고 목회적인 대답을 제시하고, 또한 기독교인의 생활양식과 생태적 영성을 이야기하며, 탄소중립 녹색교회의 목회와 생태적 신앙교육의 사례를 제공한다.

우선 총론과 1부에서 기독교인 환경전문가들이 지구 생태계가 처한 위기 상황을 분석한 다음, 어떻게 하면 이에 대처할 기독교 신학과 신앙을 이론적·실천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전문적인 환경학 연구자이면서 환경 관련 국가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을 살려 김정옥 명예교수와 윤순진 교수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한다. 이 두 연구자는 탈탄소 전환을 위한 사회 전환이라는 과제를 제시하며, 이것을 위한 교회의 역할과 “기후 시민”으로서의 기독교인들의 공적 신앙의 가치를 강조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김신영 박사는 ‘정의’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환경 문제를 접근하면서 실천과 가치관의 전환을 촉구한다.

2부에서는 4명의 신학자들이 기후 위기 시대의 신학과 신앙에 대해 논한다. 이정배 교수는 기후 위기 시대의 신학적 과제로 탈성장, 즉 삶의 양식의 전환 및 공생과 공빈을 통한 사회적 연대를 제시한다. 박일준 교수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근거로 인간중심주의뿐만 아니라 생명-유기체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비유기체적인 존재들을 동등한 존재로 포용하고 연대하는 물(物)의 신학을 주장한다. 박성철 박사는 한국교회가 공적 신앙과 윤리 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공적 신앙과 녹색교회의 사명을 강조한다. 조영호 교수는 기후 위기를 윤리적 문제로 접근하면서 지속 가능성, 기후 정의, 간세대적 정의의 문제를 주목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기독교 윤리적 가치를 천명한다.

3부에서는 “녹색교회와 생명목회, 그리고 환경교육”이라는 주제 아래 위기에 처한 지구와 함께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의 모습, 그리고 이러한 삶과 신앙의 구체적 사례를 소개한다. 정원범 교수는 기후와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생태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 책임을 다하는 생태 목회를 주장하면서, 이를 위한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과제와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백영기 목사는 쌍샘자연교회에서 시도하고 있는 “생명 목회와 녹색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생명, 영성 목회”, “생태, 자연 목회”, “삶, 관계의 목회”의 경험을 공유한다. 유미호 센터장은 모두를 위한 기독교

생태 환경 교육을 제안하면서, 구체적인 생활 영성 훈련을 소개하고, 마을 교회가 일상에서 이웃과 함께할 수 있는 여러 영역의 교육 실천 프로젝트도 제시한다. 김오성 목사는 생태 위기 시대에 “생태 공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숨을 통한 생태 영성 훈련” “생태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 묵상” 등의 구체적인 “생태 영성 훈련” 방법을 안내한다. 이박행 목사는 오랜 기간 주력해온 암 환우 대상 ‘전인 치유 사역’과 생태 마을의 경험 그리고 교회 생태계 복원과 생명 목회를 위한 현장의 경험과 역사를 생생하게 들려준다.

4부는 기후 위기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비전과 신앙고백과 기도를 담고 있다. 두 분 목회자는 오랫동안 기후 위기 시대에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적극적인 역할과 구체적인 실천을 호소했다. 한기채 목사는 현 코로나19 팬데믹을 우리에게 종말을 준비하라는 경고의 음성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창조 이야기를 바탕으로 창조-생태주의적 신앙고백을 들려준다. 송준인 목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탄식하는 창조세계 속에서 좌절하기보다는 총체적 구원의 모습에 집중함으로써 먹고 입는 일상에서 “다른”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권면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환경 청지기로서 구체적인 행동을 결단하는 기도를 드린다. 이로써 신앙고백과 기도가 이 책의 대미를 장식한다.

〈기후 위기 시대의 기독교〉 프로젝트의 첫 성과물인 이 책이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 녹색교회, 생명 목회를 꿈꾸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에게 하나의 길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탄소 중립과 공정한 사회 전환을 새 비전으로 품고 공적 신앙과 창조적 영성을 생활양식으로 삼으려는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적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로써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작으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필 자 소 개**

**김정욱** 교수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현 환경협력대사

**윤순진** 교수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전 2050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신영** 박사 | 박사, 생태인문학자, 살림연구소 부소장

**이정배** 교수 | 감신대학교 은퇴교수, 현장아카데미 원장

**박일준** 교수 | 감신대학교 종교철학, 이음사회문화연구원 운영위원&연구위원

**조영호** 교수 | 안양대, 이음사회문화연구원 연구위원, 프로젝트 책임자

**박성철** 박사 | 정치신학연구소 교회와사회 대표, 이음사회문화연구원 운영위원&연구위원

**정원범** 교수 | 교회와사회연구소 소장

**백영기** 목사 | 쌍샘자연교회

**유미호** 센터장 | 기독교환경교육센터\_살림

**김오성** 목사 | 한국살렘영성훈련원

**이박행** 목사 | 복내전인치유선교센터 원장, 한국생명신학포럼 총무

**한기채** 목사 | 중앙성결교회 담임, 전임 기성 총회장

**송준인** 목사 | 청량교회 담임, 총신대학교 교수



## “행동하는 신앙”을 위한 제안

이인미 박사 |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연구실장

“행동하는 신앙”은 기독교인들에게 낯선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 말씀을 이미 들은 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곧 “사랑으로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먼 옛날, 지구라는 행성이 생겨났습니다. 지금 인간이 거주하고 있는 이 행성입니다. 하늘과 물, 햇빛과 바람, 중력과 공기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만큼’ 우리 생명에 최적화되어있습니다. 지구라는 행성이 이런 모습을 갖추기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지구환경이 생명체들에게 충분히 적합한 조건을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지구환경을 창조해주셨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창조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의 창조신앙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 그것이 기후위기시대 행동하는 신앙의 열쇠입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행동하는 신앙”의 구체적 활동내용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한 가지를 제안해보겠습니다.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전파를 위해 제자들을 흠여 보내실 때에도 한 명씩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둘 이상의 사람들이 같이 다니면 서로 대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관점은 다른 관점을 경청하며 보충되고 수정 받으면서 더 바람직한 쪽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비롯해 우리를 둘러싼 지구환경 전반에 대하여 “행동하는 신앙”을 위한 제안, 역시 ‘대화’입니다. ‘대화’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 어디엘 가든 누구를 만나든 대화모임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과 대화하는 모임을 만들고, 옆 교회 교인들과 모임 단위로 연대하고, 나아가 비기독교인들에게도 같이 대화하자 제안하고, 환경 관련 여러 정책들을 직접 관리하는 정부 담당자들에게도 대화하자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환경 관련 이슈들을 마음속으

로 ‘지지’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을 발표해야 하고 남의 마음, 남의 의견을 경청해야 합니다. 대화하여야 합니다. 혹시 대화를 거부하고 대화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래도 끈질기게 대화를 청합시다. 만남,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손편지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대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물론 살면서 우리가 다 경험한 바 있지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대화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어느 누구도 “대화는 쉬운 것!” 선불리 말하지 못합니다.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가 소통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말을 상대가 듣지 않는 것도 소통에 실패한 것이지만, 상대의 말을 내가 듣지 않는 것도 소통에 실패한 것입니다. 딱히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어차피 소통실패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실패할지라도 계속 소통을 목표로 끝없이 대화를 시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대화를 결국 소통으로 이끌어주실 소통의 영—성령께 기도하며(행2:5, 고후13:13), 일상생활에서 매순간 성심성의껏 대화의 장을 만들어 참여하는 것, 우리 대화의 주제를 ‘기후위기 그리고 지구환경’으로 삼는 것, 그것이 기후위기시대 “사랑으로 행동하는 신앙”의 시작이자 과정이자 목표일 것입니다.

소통의 완성은 하나님께 맡기고 대화를 시작하기로 합시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신앙”을 개시합시다! 오늘 우리가 발표하는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기후교회 신앙선언”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대화의 문을 활짝 열고 거기 들어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탄소중립 2050을 위한 신앙적 관점에서 사회전환 방향 제안

최영수 교수 | 숙대 TESOL, 국제학대학원 기후환경융합과

사회전환이란 현재 사회의 실태를 잘 분석하고 탄소중립 등 지구 살리기를 위해서 현재의 방향이나 상태를 바꾸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매우 광범위한 영역이므로 개인들의 관점에 따라 다루고자 하는 영역은 매우 넓을 수 있으나 범위를 한국중심으로 하고 글로벌 영역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야 할 분야를 고려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회의 실태를 살펴보면 우리가 사는 지구(땅)는 지속 가능한지, 현재 시민들의 삶을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그러면 이러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어떤 사회적 전환에 요구되는지에 대해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세기 1:1)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창세기 1:11)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창세기 1:12) 내용을 보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자연, 인간, 동물, 미생물이 각각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균형된 사회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최근 문제는 공통적으로 “균형점의 상실(Unbalance)”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후환경 측면에서 보면 ipcc 제6차 분야별실무보고서에 의하면 이미 지구의 산업사회 이전 평균온도 대비 1.09℃ 더워졌고, 평균 바다 수면은 20cm 높아졌고, 온실가스는 80만년만에 없었던 수준으로 공기상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ppm을 초과 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지구 평균이 6.9t(톤)CO2eq 임에도 한국의 1인당 배출량은 2019년 기준으로 13.6톤CO2eq 으로 약 두 배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보면 올해 6월 12일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5억3천 명이 넘게 감염이 되어 이중 사망자가 6백3십만 명 넘는 실정으로 한국도 1천8백만 명이상 감염

되어 사망자가 2만4천 명이 넘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이 인간이 식량 확보 등 삶의 터전을 확산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자연환경의 훼손이 근본적이 원인 중 하나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연구팀은 기후변화로 야기된 야생동물들의 서식지 확산을 지적하면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유한 박쥐의 서식지가 중국 남부(윈난성)와 인근지역 일대로 확대되며 박쥐종이 증가하는 등 인간과의 접촉 가능성이 높아진 점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민의 삶과 관련하여 보면 '20년 현재 5,178만 명인 한국 인구 규모는, 출산율 하락 등에 따라 감소세로 전환되어 '60년대 후반 4,000만 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출산율도 지속해서 하락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초저출산 수준('19년 합계출산율 0.92)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우려로 국가경쟁력 하락과 삶의 질에 대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삶이 균형점을 훼손하여 사회 불평등 심화와 함께 정치·사회·문화·정서적 차원에서 사회적 배제적인 요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주거,건강,교육,노동,사회적관계망에서 자원과 기회의 박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이러한 사회적 배제를 완화할 역할을 해야 할 지도층, 정치권에서는 이런 점을 방관 또는 조장한다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토대로 사회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면 지구환경과 우리의 삶과 관련 조화를 이룰 “균형점(Balance) 찾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먼저 기후환경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점, 우리가 사는 지구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데에 대한 인식의 획기적 전환이 우선하여 요구됩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지구가 재생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자원과 서비스를 사용함으로 인해 이미 적자상태인 생태발자국을 정상적 수준으로 옮겨야 합니다. 플라스틱을 포함한 폐기물에 대한 자원순환의 활동강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대신할 신재생에너지확대와 기술개발, 재생에너지 수요공급을 맞출 녹색요금제(green pricing)를 통한 RE100확대,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환경을 고려하고 인권과 공정을 중시하는 ESG 구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이 긴급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자연환경의 훼손으로 인한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도록 인류와 자연과의 공존에 신앙들이 앞장서서 교회 전체가 움직이면서 사회를 바꾸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녹지 확대 등 생태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시민의 삶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소외된 자를 보살피며 빈곤을 퇴치하고, 경제성장과 일자

리를 증진하는 데에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갈등적 요인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 어린이를 학교에서 집으로 픽업하는 일을 매우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한국에서도 어린이를 양육하는 데 부모들의 어려움이 없고 갈등적요인 없도록 신앙인들과 교회가 먼저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에는 이데올로기적인 접근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회문제를 극복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에 솔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Partnership 즉 다양한 거버넌스와 협력이 절실합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관점은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웃 간에 사랑을 실현하는 긍정적인 접근이 무엇보다 요구됩니다.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방향 (예시)

감축 Mitigation	건물	건물에너지 효율 제고, 에너지절약, 친환경 설계·관리
	수송	대중교통체계 정책, 친환경 그린카 보급, 자전거이용시설
	에너지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이용·청정연료·집단에너지 공급확대
	폐기물	폐기물발생 원천감량, 재활용촉진,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적응 Adaptation	기후개선	녹화사업, 하천복원, 생태계 복원사업
	건강보호	폭염·열대야 대비 정책, 전염병 예방·대응대책
	수자원관리	수량·수질관리, 빗물재활용
	수방대책	집중호우 대비 시설 보강, 침수예방
참여 Citizen Participation	시민실천	가정·학교 등 환경교육, 에코마일리지, 실천프로그램 강화

## 전인 건강도시를 위한 제안

강은정 교수 | 순천향대, 호산건강환경재단 사무국장

세계보건기구는 건강도시를 “시민이 자신의 삶의 기능들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의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개선하며 시민들이 서로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로 정의한다. 우리는 보통 건강이라고 하면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건강이란 이것을 넘어서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웰빙 상태, 창조될 때 갖고 있는 잠재적인 기능들을 온전히 발휘하여 누리는 상태이다. 도시는 시민의 건강 말고도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으나 건강도시는 시민의 건강을 최고의 가치로 두기로 선언한 도시이다. 현재 국내에는 102개 도시가 건강도시를 선포하였고, 작년 12월에는 보건복지부 주관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에 건강도시 근거가 마련되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 단체는 건강도시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첫째, 건강도시 실현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참여는 필수적이고 교회연합은 많은 시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즉, 시민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건강한 공공정책을 만드는데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문화명령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요약되는 예수님의 계명을 땅 끝까지 전파하라는 지상명령을 받은 무리들이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이러한 사명은 시민의 건강을 위해 도시의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건강도시의 방향성과 공통점을 갖고 있다. 물리적 환경에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생태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적 환경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즉 이웃과의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건강도시의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의 현대적인 실천전략일 수 있다.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두 가지만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건강도시인지, 건강도시로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교회는 청지기적인 자세로 도시행정이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

고,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도시사업의 기획, 실행, 평가 등 전반적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각 도시별로 '건강도시교회연합'을 구성해 보는 것은 어떨까? 연합이 이루어지면 의회, 국회, 건강도시협의회 등의 공적인 기관들의 파트너로서 건강도시를 구현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좋은 자원이 되어야 한다. 한국사회는 경쟁과 스트레스, 남들의 이목에 매우 민감한 편이다. 그래서 빠른 성장을 이루기도 했지만 2003년부터 단 두 번을 제외하고 매년 OECD 국가들 중 자살사망률 1위를 유지해 오고 있을 정도로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이 매우 열악하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찾을까? 어느 정신과 의사, 어느 스님이 아닌 어느 교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 내고 그것을 통해 정서적, 물질적, 조언적 지원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 즉 사회적 연결망을 만들고 강화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 한국교회 행동제안서

구교형 목사 |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공동대표

### 죄책고백

우리는 인류를 넘어 모든 피조물이, 지구를 넘어 온 우주가 하나님에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의 영역임을 고백한다. 그러나 사실 그 고백이 공허하다. 우리 인간은 온 세상과 공존하고, 가꾸고, 섬기기는커녕 생태계 전체를 맘대로 지배하고, 파괴하고, 남용해 왔으며,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대신 우리가 주인이 되어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의 사명(창 1:28)을 '맘대로 해도 좋다'는 탐욕선언으로 착각해왔다.

그 결과 지구는, 세계는 회생가능 여부에 의문을 가질 만큼 심하게 파괴되고, 병들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와 청지기인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병든 지구와 황폐한 세계에 대한 죄책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지금이라도 우리의 우선적, 필생의 사명으로 붙들기로 다짐해야 할 것이다.

### 상황우려

지금은 '환경보호' '자연보호'식의 느긋하게 좋아지기를 기다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시간이 별로 없다. 피부적으로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다. 2010년대에는 광우병, 가축 및 가금류 전염병으로 몸살을 겪었고, 빙하가 녹아 북극곰 불쌍하다고 외쳤다. 안 됐지만 여전히 남의 얘기, 다른 동물들 얘긴 줄 알았다. 그런데 황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미세먼지로 우리는 2019년 내내 마스크 쓰고 살았다. 2020년 들이닥친 코로나 여파를 여전히 실감하면서 전 지구적 재앙을 실감하고 있다. 점점, 인간에게, 그리고 나에게, 무엇보다 다음세대에 직접, 더 크게 닥칠 것임을 경고하고 있으나 우리 각오와 전환의 자세는 여전히 멀다.

지구(창조세계)가, 인류로서,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세대에도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심각한 생존과제다.

### 제안

- 1) 창조세계를 인간이 맘대로 해도 좋은 도구에 불과하다고 믿고, 맘대로 억압해온 잘못된 세계관과 신학을 깊이 반성하고, 하나님 중심적 생태신앙과 청지기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 2) 각 교단과 한국교회연합기구들은 총회 및 본부 차원 탈 탄소, 생태회복 선언을 채택하고, 회원교회들이 이를 실천,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방향을 이끌어야 한다.
- 3) 한국교회는 교회차원의 탈 탄소, 생태회복 과제를 수립하고, 교인들이 구체적으로 목표치를 정하여 교회와 가정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해야 한다.



## 탄소제로 녹색교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탄소제로 녹색교회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가진단의 과정을 거쳐봄으로써 해야 할 일을 알게 되거나 이미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강력한 실천동기를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창조주 하나님을 목상하며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위기감을 깨닫는 교인들이 하나 둘 늘어간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자연스럽게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창조의 녹색 빛을 가리지 않고 드러내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그러면 교회 역시 탄소제로 녹색교회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선언하는 행동이 탄소제로 녹색교회로 더욱 단단히 서가게 할 것입니다.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자가진단에 참여하세요.



개인 생태발자국 자가진단  
<https://url.kr/86f4ez>



개인 생태발자국 "간단" 자가진단  
<https://url.kr/5c96k2>



탄소제로 녹색교회 자가진단  
<https://url.kr/eyfpjw>



탄소제로 녹색교회 자가진단  
(교회와 생활 - 종합편)  
<https://url.kr/ojn8yk>

주관 :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



위 자가진단지 4종을 온오프라인으로 제공받으려면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거나 큐알코드를 스캔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ecochrist?Redirect=Log&logNo=222543135469&from=postView>

